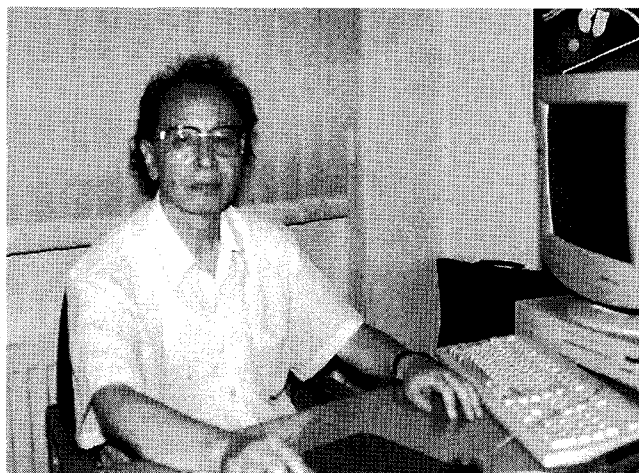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중 1위 선정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선구적 위치 고수

김 교 만 /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명예교수 · ESSE연구소 소장



▲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위로 선정된 김교만 교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지난 8월 7일,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디자이너를 선정,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고취와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을 선정·발표했는데 영예의 1위로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김교만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69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인 컴퓨터를 익히고 끊임없는 작품활동을 해 후배들

의 귀감이 되었고 국내 산업디자이너계의 선구적인 역할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아온 김 교수는 “업계 선배들도 많고 동료, 후배 등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선정된 것은 정말 뜻밖이고 또한 기쁩니다. 이번 산업디자이너 선정은 한 사람의 인성, 인품, 활동범위 등을 종합해서 제3자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전공분야인 일러스트레이션 분야 뿐 아니라 여러 환경분야에 적용되는 일을 하는

등 폭넓게 일하고 있는 제가 주위에서 많이 기억되다보니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나 합니다”라며 담담하게 선정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순수미술을 응용해 우리 생활주변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식의 단순한 문자오입만으로도 흥미를 느껴 응용미술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30여년이 넘는 활동기간동안의 작품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88 올림픽 문화포스터, 94년 한국방문의 해 포스터와 한국체신우

정 100주년 기념 특별우표디자인 등을 꼽는 김 교수는 그 이유로 자신의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된 작품이기 때문임을 들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농약을 주제로 한 시리즈 작품이라는 것인데 “제 디자인의 주요 컨셉은 우리나라 민속입니다. 민속농약, 전통 춤 등을 테마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적인 것을 잘 표현하는 작가로서의 김교만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자부합니다”라며 디자인의 방향을 설명했다.

디자인은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감각이 60:40으로 배합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주로 후자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한국적인 것, 즉 농약경연대회 포스터, 국악관련포스터, 한국방문의 해 포스터 등 한국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자신의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는 경우 작업을 수락한다고 한다.

응용미술은 그 감각이나 사회의 이용도 등이 1년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만큼 시대성이 예민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세계의 뉴스 및 디자인잡지를 항시 주목하고 국제전시회나 세미나 등에 자주 참여하면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병행해 발전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가져야만이 세계화에 적응하는 선진화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역설했다. 또한 포장디자인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는데 현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평가위원인

김 교수는 “내용물을 보호하고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 선전매체로서의 역할과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포장에는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미적인 요소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며 이러한 부분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ESSE 연구소의 소장을 겸임하며 한양대학·산업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 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자신의 작품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기술을 제공하고 시간의 단축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는 컴퓨터의 기능습득에도 정진하고 그 시간적인 여유를 영어, 일어 등 어학공부 및 아이디어 기획에 쏟아부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분야는 다르지만 다니고 있는 성당의 내부설계를 디자인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50주년 기념 우표디자인을 마치고 발행할 예정에 있으며 개인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디자인업계를 희망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는 김 교수는 노령이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자기개발로 희망적인 업계의 전망을 더욱 밝게 이끌어 가는 업계의 선두주자임에 틀림없다. ☐

윤지은 기자